

제 1 교시

1강 - 품사

홀수형

<A>

[단어 개념 파트 01번 문항 변형 (p. 209)]

- a. '꽃이 예쁘게 피었다.'에서 '예쁘게'의 품사는 부사이다. (○ / ×)
- b. '세 면'에서, '세'는 명사이다. (○ / ×)
- c. '바로 너'에서 '바로'는 체언을 수식하는 부사이다. (○ / ×)
- d. '나는 신이 있다고 믿는다.'에서 '있다'는 동사이다. (○ / ×)

x, x, O, x

[3, 4번 문항 변형 (p. 269)]

1. 다음 ㉠과 ㉡에서 밑줄 친 단어의 관계가 '단어의 형태는 같으나 품사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 그는 백이면 백 모든 일을 성공했다.
 ㉡ 그는 백 년을 해도 이 일은 못할 것이다.
- ② [㉠ 내가 갈 테니 너는 학교에 있어라.
 ㉡ 나는 신은 반드시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다.
- ③ [㉠ 방 안은 숨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했다.
 ㉡ 명주는 무명만큼은 질기지 않다.
- ④ [㉠ 사무실은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비교적 교통이 편리하다.
 ㉡ 이 문제는 두 입장의 비교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
- ⑤ [㉠ 내 양심은 천만금, 인니 억만금을 준다 해도 버릴 수 없다.
 ㉡ 아랫방에서 이야기 소리도 아니 들리는 것이 궁금하다.

[종합 3번 문항 변형 (p. 271)]

2. 제시된 자료를 통해 의존 명사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료	탐구 내용
① ㄱ. 먹을 것이 매우 많다. ㄴ. *것이 매우 많다. (*는 비문법적표현)	의존 명사는 ㄴ처럼 홀로 쓰일 수 없고 ㄱ처럼 반드시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만 한다.
② ㄱ. 그가 떠날 리(가, *를, *에) 없다. ㄴ. 빵을 사는 길(에, *을, *이) 우유도 샀다.	의존 명사는 결합하는 격 조사가 제한되기도 한다.
③ ㄱ. 나는 과메기를 (먹을, *먹는, *먹던) 줄을 모른다. ㄴ. 비가 (오는, *운, *올, *오던) 바람에 물이 넘쳤다.	의존 명사는 앞에 오는 관형사형 어미가 제한되기도 한다.
④ ㄱ. 나는 네가 잘할 줄 알았다. ㄴ. *나는 네가 잘할 줄 있었다.	의존 명사에 따라 문장의 서술어가 제약받기도 한다.
⑤ ㄱ. 밥을 먹는데 비가 왔다. ㄴ. 밥을 먹을 때가 있나요?	ㄱ과 ㄴ에서처럼 의존 명사는 조사와 형태가 동일하기도 한다.

<C>

[문장 4번 문항 변형 (p. 252)]

- a. '이것은 무엇이니?'에서 '무엇'은 미지칭이다. (○ / ×)
- b.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무엇'은 부정칭이다. (○ / ×)
- c. '여기가 어디니?'에서 '어디'는 부정칭이다. (○ / ×)
- d. '누구세요?'에서 '누구'는 부정칭이다. (○ / ×)
- e. '할머니께서 당신이 손수 지으신 꽃감'에서 '당신'은 재귀칭이다. (○ / ×)

O, O, x, x, O

[문정 4번 문항 변형 (p. 252)]

3.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가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이룬 것으로 이해할 때, ㉠~㉣의 의문문을 올바르게 분류한 것은?

<보기 1>

국어의 문장은 어떠한 종결 어미를 취하느냐에 따라 문장의 유형이 달라진다. 종결 어미를 통하여 화자는 자신의 의향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종결 어미들로 인하여 표시되는 문법 범주를 문장 종결법이라고 한다. 국어에서는 문장 종결법을 크게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으로 나눌 수 있다.

의문문은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으로 다시 세분화할 수 있다. 판정 의문문은 '예', '아니오'로 답을 할 수 있는 의문문이며, 설명 의문문은 구체적인 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이다.

예를 들어, '오늘 누가 안 왔나?'라는 문장이 판정 의문문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그 대답은 '예'나 '아니오'가 될 것이고, 부정칭 대명사 '누구'가 사용된 것이다. 그러나 설명 의문문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답이 구체적인 서술이 된다. 가령, '철수가 안 왔어요.' 등의 대답이 이어질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미지칭 대명사 '누구'가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기 2>

- [가: ㉠ 저녁에 뭐 먹었니?
나: 아까 집에 있던 피자 데워서 먹었어.
- [가: ㉡ 요즘 연예인 중에 누가 인기 있니?
나: 나도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
- [가: ㉢ 언제 라오스로 떠난다고 했니?
나: 아마 2주 뒤에 갈 것 같아요.
- [가: ㉣ 오늘 어디 나가?
나: 철수랑 만나기로 했어.
- [가: ㉤ 내일 만나서 뭐 할래?
나: 몸이 안 좋아서 힘들 것 같아.

	판정 의문문	설명 의문문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인칭 대명사는 화자를 대신하는 1인칭, 청자를 대신하는 2인칭, 화자와 청자가 아닌 제3자를 대신하는 3인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3인칭은 가리키는 대상에 따라 부정칭, 미지칭, 재귀칭으로도 쓰인다. 부정칭은 '누구, 아무'처럼 특정 대상을 가리키지 않는 경우에 쓰는 말이고, 미지칭은 '누구, 어느'처럼 대상의 이름이나 신분을 모를 때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 쓴다. 그리고 재귀칭은 '자기, 저, 당신'처럼 앞에 나온 문장의 주어 명사구를 다시 가리킬 때 쓴다.

- (1) 가. 누구 기다리세요?
나. 아니요, 줌 앉아 있는 거예요.
다. 동우를 기다려

의문문에서 '누구'는 부정칭과 미지칭으로 모두 쓰일 수 있다. (1)의 예에서, '(1)-가'가 실제 발화에서 어떻게 실현되느냐에 따라 상대방은 '(1)-나'처럼 대답할 수도 있고, '(1)-다'처럼 대답할 수도 있다. 먼저 '(1)-가'에서 대명사 '누구'에 강세를 주지 않고 문장의 끝을 올려 화자가 질문하면 '(1)-나'와 같이 청자는 대답할 것이다. 이는 '누구'가 특정 대상을 가리키지 않는 것이므로 부정칭으로 쓰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1)-가'에서 대명사 '누구'에 강세를 주고 문장의 끝을 내려 화자가 질문하면 '(1)-다'와 같이 청자는 대답할 것이다. 이는 '누구'가 대상의 이름이나 신분을 모를 때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 쓴 것이므로 미지칭으로 쓰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처럼 '누구'는 주로 의문문에서 쓰이는 '의문'을 나타내는 대명사로, 부정칭과 미지칭으로 모두 쓰일 수 있다. 그리고 의문문이 아닌 경우에도 미지칭 '누구'에 '(이)나, 도, 든지' 등의 조사가 결합하면 부정칭으로 쓰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은 누구나 소망을 가지고 산다."에서 '누구나'는 '누구'에 조사 '나'가 결합한 것으로 부정칭이라 할 수 있다.

- (2) 가. 주희는 자기 동생을 매우 귀여워한다.
나. 우리 애가 아직 어려서 저만 압니다.
다. 할머니는 생전에 당신께서 담그신 장을 지켜달라고 말씀하셨다.

문장의 주어에 쓰인 명사구를 가리키는 대명사를 재귀칭이라 하는데, '(2)-가'의 '자기'는 '주희'를, '(2)-나'의 '저'는 '우리 애'를, '(2)-다'의 '당신'은 '할머니'를 대신하여 쓴 것이다. 이때 주어에 쓰인 명사구는 일반적으로 1인칭이나 2인칭이 아닌 3인칭이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는 높임의 관계에 상관없이 쓰일 수 있는 보편적인 대명사인 반면에, '저'는 가리키는 주어 명사구가 낮춤의 대상일 때 쓰이고, '당신'은 가리키는 주어 명사구가 높임의 대상일 때 쓰인다. 아울러 문장의 주어 명사구를 대신할 때 재귀칭이 아닌 다른 인칭 대명사를 쓰면 문장의 주어 명사구가 아닌 다른 대상을 가리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정 4번 문항 변형 (p. 252)]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 누구니?
- ㉡ 누가 왔니?
- ㉢ 병수는 군우를 그의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
- ㉣ 삼촌은 {자기, 저, 당신}의 책들을 무척 소중한 여긴다.
- ㉤ 나는 숙제란 자기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

- ① ㉠에서 '누구'는 미지칭으로만 쓰였다.
- ② ㉡는 '누가'의 강세 여부에 따라 대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아무나'로 바꾸면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 ③ ㉢의 '그'는 '군우'를 가리키거나 '병수'가 아닌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쓰일 수 있다.
- ④ ㉣에서 '삼촌'을 대신하는 재귀칭을 쓴다면 선택항 중에서는 '저'가 들어갈 수 없다.
- ⑤ ㉤의 '자기'는 문장의 주어 명사구인 '나'를 대신하였다.

[종합 5번 문항 변형 (p. 288)]

5. <보기>는 국어사전의 일부이다. ㉠~㉣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I] 「대명사」
「1」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아닌 사람을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 앞에서 이미 이야기하였거나 듣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주로 남자를 가리킬 때 쓴다.
㉠ _____ ㉠

「2」 앞에서 이미 이야기하였거나 듣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 _____ ㉡

[II] 「관형사」
「1」 듣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듣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
㉢ _____ ㉢

「2」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
㉣ _____ ㉣

「3」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밝히고 싶지 아니한 일을 가리킬 때 쓰는 말.
㉤ _____ ㉤

- ① ㉠ A: 내가 당황하니까 실장님이 또 나를 도와주더라우.
B: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인 거 같아.
- ② ㉡ A: 오늘까지 받는 게 어떨까요?
B: **그**보다는 기간을 더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③ ㉢ A: 어제 모임에 민수가 안 왔던데요?
B: 개는 **그** 소식을 못 들은 거 아닐까?
- ④ ㉣ A: 이 창고에는 뭐가 있나요?
B: **그** 무엇인가 있긴 한데... 말하기는 곤란해.
- ⑤ ㉤ A: 이 물건들 중에 뭘 빼는 게 좋을까?
B: **그** 책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

<D>

[단어 1번 문항 변형 (p. 246)]

- a. '백두산이 보고 싶다.'에서 '이'는 주격 조사이다. (O / X)
- b. '나는 선생님이지 아니다.'에서 '이'는 보격 조사이다. (O / X)

X, O

[단어 1번 문항 변형 (p. 246)]

6. <보기 1>의 ㉠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조사는 문장에서 자립성이 있는 말(주로 체언)에 붙어서 나타낸다. 이러한 조사는 ㉠ 다른 말과의 관계를 표시하는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고 특수한 뜻을 더하기도 한다. 이처럼 문장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조사는 그 기능에 따라 격 조사, 보조사, 접속 조사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철수가 집에 간다.'에서 '가'는 명사 '철수'가 문장 안에서 주어의 자격을 갖도록 하며, 문법적인 의미 이외의 특별한 의미를 전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네 말은 도대체가 틀려먹었다.'에 쓰인 조사 '가'는 부사 '도대체'에 결합하여 선행어에 대해 강조의 의미를 더한다.

<보기 2>

- ㉠. 시험이 끝났는데도 기분이 좋지가 않다.
- ㉡. 청소를 하고 나니 교실이 매우 깨끗했다.
- ㉢. 너는 어찌자고 혼자 시장을 갔니?
- ㉣.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과자를 먹겠다.
- ㉤.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점심을 먹지를 못했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단어 개념 파트 02번 문항 변형 (p. 209)]

7. <보기>의 ㉠~㉤에 대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 조사 중에는 자립할 수 있는 말에 결합하여 이 말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도록 하는 조사가 있다.
- ㉡ 조사 중에는 앞말의 성격에 따라 기능이나 의미는 동일하지만 형태가 다른 조사가 선택되어 쓰이기도 한다.
- ㉢ 조사 중에는 단어와 단어, 또는 문장과 문장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조사가 있다.
- ㉣ 조사 중에는 부사나 어미 뒤에 결합하는 조사가 있다.
- ㉤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와 조사가 잇달아 결합하여 쓰이기도 한다.

- ① ㉠ : 진호야, 학교에서 보자.
- ② ㉡ : 어머니는 꽃에 물을 주라고 동생에게 말씀하셨어.
- ③ ㉢ : 영호는 내 동생과 전혀 닮지 않았어.
- ④ ㉣ : 영수도 이 음식을 빨리 먹고 싶어 해요.
- ⑤ ㉤ : 나만이 그들을 적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어.

[단어 4번 문항 변형 (p. 248)]

- a. '영희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에서 '에게'는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 / ×)
- b. '다림쥐에게 먹이를 준다.'에서 '에게'는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 / ×)
- c. '남에게 놀림을 받다'에서 '에게'는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 / ×)

x, ○, ○

[단어 4번 문항 변형 (p. 248)]

8. <보기>의 ㉠~㉣에 해당하는 용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같은 형태의 격 조사라도 실제 문장에서 쓰일 때에는 의미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조사 '에서'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의 여섯 가지 의미로 쓰이는 다양한 용례를 알 수 있다.

에서 「조사」 (체언 뒤에 붙어)

「1」 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맛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기분이 좋다.

「2」 앞말이 출발점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_____ ㉠)

「3」 앞말이 어떤 일의 출처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_____ ㉡)

「4」 앞말이 근거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_____ ㉢)

「5」 앞말이 비교의 기준이 되는 점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_____ ㉣)

「6」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_____ ㉤)

- ① ㉠ : 너는 집에서 몇 시에 나올거야?
- ② ㉡ : 반찬은 주로 시장에서 사온다.
- ③ ㉢ : 이는 고마운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다.
- ④ ㉣ : 이에서 어떻게 더 좋을 수 있겠나?
- ⑤ ㉤ : 학교에서 내린 결정이므로 따라야만 한다.

[종합 3번 문항 변형 (p. 277)]

9. ㉠과 ㉡에 들어갈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나마₇ 「조사」
 ((받침 없는 체언류나 부사어 뒤에 붙어))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거나 어떻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조건이지만 아쉬운 대로 인정됨을 나타내는 보조사.

▶ (_____ ㉠)

-나마₈ 「어미」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르’ 받침인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어떤 상황이 마음에는 차지 아니하나 아쉬운 대로 접어주는 조건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 (_____ ㉡)

- ① ㉠ : 주변을 통해 어렵사리나마 구할 수 있었다.
- ② ㉡ : 이렇게 잠시나마 얼굴을 보아서 기쁘다.
- ③ ㉢ : 김치나마 구할 수 있어서 밥을 먹었다.
- ④ ㉣ : 네가 도와준 덕에 늦게나마 일을 마칠 수 있었다.
- ⑤ ㉤ : 다 먹지는 못하나마 버려서는 안 된다.

<E>

[단어 3번 문항 변형 (p. 243)]

- a. '건강하세요.'라는 말은 '건강하게 지내세요.'로 바꿔 쓰는 것이 좋다. (○ / ×)
- b. 명령문과 청유문의 부정표현은 짧은 부정으로 표현할 수 있다. (○ / ×)

○, ×

[단어 3번 문항 변형 (p. 243)]

10. 다음 학생의 답안 중에서 수정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말하는 이가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청자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를 문장 종결 표현이라고 해요. 국어의 문장은 일반적으로 종결 어미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명령문과 청유문에 대해 알아보까요? 다음 예시를 살펴봅시다.

• 영희야, 책을 ㉠읽어라 / 읽자.
 • 영희야, 지금보다 더 ㉡예쁘라 / 예쁘자.

㉠은 동사 어간 '읽-'에 명령형 어미 '-어라'와 청유형 어미 '-자'가 결합한 것이고, ㉡은 형용사 어간 '예쁘-'에 명령형 어미와 청유형 어미가 결합한 것이예요. 하지만 ㉡은 ㉠과 달리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 자연스러워지려면 '예뻐져라'나 '예뻐지자'로 고쳐야 해요.

다음 활동지의 문제들을 풀어 볼까요?

활동지

§ 다음 중 자연스럽게 읽은 문장을 찾아 바르게 고쳐 보자.

- 새해 복 많이 받고 돈도 많아라. → 많아져라. ①
- 선물을 받으니, 마음이 황홀해라. → 황홀해져라. ... ②
- 올해는 코트를 사서 따뜻하자. → 따뜻해지자. ③
- 우리 서로에게 착하자. → 착해지자. ④
- 신기록 달성을 위해 우리도 빠르자. → 빨라지자. ... ⑤

[종합 4번 문항 변형 (p. 272)]

11. <보기 1>의 설명을 바탕으로 <보기 1>의 ㉠, ㉡과 <보기 2>의 a~e를 알맞게 짝지은 것은?

<보기 1>

학생: 선생님, '없다'는 '물이 없어라'와 같은 명령문이나 '물이 없자'와 같은 청유문이 될 수 없으니 형용사인가요?

선생님: 맞아. '없다'는 명령형이나 청유형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형용사이지.

학생: 그럼, '있다'는 '영이는 집에 있어라'와 같은 명령문이나 '영이는 집에 있자'와 같은 청유문이 가능하니까 동사겠네요?

선생님: 좋은 질문이구나. '영이는 집에 있어라'나 '영이는 집에 있자'와 같이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가능하다면 '있다'는 동사라 할 수 있지. '있다'가 '움직이다'의 반대되는 뜻으로 '움직이지 않거나 머물다'의 의미, '사람이나 동물이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 등의 의미를 지닐 때는 ㉠ 동사이지만, '없다'와 반대되는 뜻으로 '무엇이 실제로 존재하다'의 의미, '어떤 물체를 소유하거나 자격이나 능력 따위를 가진 상태이다' 등의 의미일 때는 ㉡ 형용사로도 쓰이지.

<보기 2>

- a 나는 신이 있다고 믿는다.
- b 그는 내일 집에 있는다고 했다.
- c 그는 지금 대기업의 과장으로 있다.
- d 모두 손을 든 상태로 있어라.
- e 그 일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 동사	㉡ 형용사
①	a, b	c, d, e
②	a, d, e	b, c
③	b, c	a, d, e
④	b, d	a, c, e
⑤	b, d, e	a, c

[단어 2번 문항 변형 (p. 217, 246)]

- a. '울 듯하다.'의 '듯하다'는 보조 동사이다. (○ / ×)
- b. '예쁘지 않다.'의 '않다'는 보조 형용사이다. (○ / ×)
- c. '먹지 않다.'의 '않다'는 보조 형용사이다. (○ / ×)
- d. '전혀 들었다.'의 '들었다'는 보조 동사이다. (○ / ×)

x, o, x, x

[단어 2번 문항 변형 (p. 217, 246)]

12. <보기>의 a~e는 모두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결합하여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문장들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a 소희는 동생이 만든 초콜릿을 먹어 보았다.
- b 그 남자는 벡타이를 매고 있다.
- c 진수는 그 신문을 찢어 버렸다.
- d 영이는 오늘 병원에 가지 않았다.
- e 혹독한 추위에도 그들은 위기를 극복해 냈다.

- ① a의 밑줄 친 '보았다'는 '시험 삼아 해 보다'라는 의미를 가진 보조 동사이겠군.
- ② b의 밑줄 친 '있다'는 "그 남자는 오늘 집에 있다."의 '있다'와 의미가 동일하다.
- ③ c의 문장은 중의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나 밑줄 친 부분을 '찢어서 버렸다'로 바꾸면 문장의 중의성이 해소된다.
- ④ 보조 용언 '않았다'는 d에서처럼 동사 뒤에 결합하기도 하고,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에서처럼 형용사 뒤에 결합하기도 한다.
- ⑤ e의 밑줄 친 '냈다'와 동일한 의미로 "오빠는 유리에 묻은 페인트를 닦아 내려고 애를 썼다."의 예를 들 수 있다.

[단어 4번 문항 변형 (p. 244)]

- a. '판교역에 이르다'에서 '이르다'는 어간 불규칙이다. (○ / ×)
- b. '하늘이 파랗다.'는 올바른 표현이다. (○ / ×)
- c. '하늘이 누레'에서 '누레'는 '누레'로 고쳐야 한다. (○ / ×)

X, X, O

[단어 4번 문항 변형 (p. 244)]

13.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용언의 활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국어의 어간 중에는 교체의 방식이 특이해서 음운 규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런 어간들은 규칙적인 교체를 보이는 어간과 대비되어 불규칙 어간이라고 부른다.

어간 끝에 'ㄷ' 받침을 가진 동사 '(흙이) 묻다'처럼 규칙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길을) 묻다'처럼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어간 끝 받침이 'ㄷ'인 환경은 'ㄷ' 불규칙 용언이나 'ㄷ' 규칙 용언 모두 같다. 그러나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들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ㄷ'이 'ㄹ'로 바뀐다는 점이 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들과 다르다. 'ㄷ'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들은 'ㄷ'이 'ㄹ'로 바뀌는 음운 교체가 일어나면 그 소리대로 표기한다. 이러한 활용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흙이) 묻다'의 활용 예	'(길을) 묻다'의 활용 예
묻-+-고 → 묻고	묻-+-고 → 묻고
묻-+-으면 → 묻으면	묻-+-으면 → 묻으면
묻-+-어 → 물어	묻-+-어 → 물어

용언	문장에서 사용된 예
① 걷다	길을 오래 <u>걸으니</u> 다리가 아프다.
② 듣다	네 말을 <u>들으니</u> 힘이 난다.
③ 믿다	너를 <u>믿으니</u> 일을 맡기는 거야.
④ 신다	차에 짐을 <u>싣어서</u> 가야겠다.
⑤ 받다	상을 <u>받으면</u> 기분이 좋다.

14. <보기>의 밑줄 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동음이의(同音異義) 관계에 있는 용언들은, 그 기본형은 같지만 다양한 어미를 결합시켜 활용을 해 보면 하나씩은 규칙, 다른 하나는 불규칙 활용을 함으로써 두 용언의 활용 형태가 서로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통해 동음이의 관계의 두 용언이 각각 서로 다른 단어임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 ① 친구가 병이 났다.
동생이 형보다 인물이 났다.
- ② 벽에 바른 벽지가 올다.
지함에 진 어린이가 올다.
- ③ 소나무가 마당 쪽으로 굽다.
어머니께서 빵을 굽다.
- ④ 친구에게 약속 시간을 이르다.
약속 장소에 이르다.
- ⑤ 장작이 벽난로에서 타다.
학교에 가려고 버스를 타다.

<F>

[종합 2번 문항 변형 (p. 276)]

- a. '상황이 그런 걸 어쩌겠나요?'에서 '그런'은 관형사이다. (○ / ×)
- b. '다른 사람과 놀지 마.'에서 '다른'은 관형사이다. (○ / ×)
- c. '나는 너와 다른 사람이다.'에서 '다른'은 관형사이다. (○ / ×)
- d. '집을 빨리 현 상태에서'에서 '현'은 관형사이다. (○ / ×)
- e. '현 신발'에서 '현'은 관형사이다. (○ / ×)

X, O, X, X, O

[종합 2번 문항 변형 (p. 276)]

15. (가)를 참고하여, ㉠~㉤ 중 관형사를 바르게 고른 것은?

<보 기>

(가)
관형사는 대명사나 수사, 용언의 관형사형과 형태상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관형사는 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명사나 수사와 구별되고, 형태가 바뀔 수 없다거나 서술성이 없다는 점에서 용언의 관형사형과 구별된다.

(나)
• 도시락 ㉠ 다섯은 너무 많은 것 같다.
• 나는 운동을 잘하는 ㉡ 그런 남자가 좋다.
• 미연은 ㉢ 새로운 각오로 다시 도전하였다.
• 그는 ㉣ 다른 곳에서 자라서 이곳 물정을 잘 모른다.

- ① ㉠, ㉡ ② ㉠, ㉢ ③ ㉠, ㉣, ㉤
- ④ ㉡, ㉣ ⑤ ㉡, ㉢, ㉤

1. ㉔

㉔의 '아니'는 "명사와 명사 사이에 쓰이거나, 문장과 문장 사이에 쓰여 어떤 사실을 더 강조"할 때 쓰는 부사이고, ㉕의 '아니'는 "용언 앞에 쓰여 부정이나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이다. 따라서 ㉔의 ㉔와 ㉕는 한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로 쓰인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㉔와 ㉕의 '백'은 "십의 열 배가 되는 수"를 의미하는 말로, ㉔는 조사 '이'와 ㉕는 결합한 수사이고, ㉕는 단위성 의존 명사 '년'을 꾸며 주는 수 관형사다. 따라서 ①의 ㉔와 ㉕는 한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로 쓰인 경우에 해당한다.
- ② ㉔의 '있다'는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머물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이고, ㉕의 '있다'는 "사람, 동물, 물체 따위가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다. 따라서 ②의 ㉔와 ㉕는 한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로 쓰인 경우에 해당한다.
- ③ ㉔의 '만큼'은 "앞의 내용에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을 의미하는 명사이고, ㉕의 '만큼'은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조사다. 따라서 ③의 ㉔와 ㉕는 한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로 쓰인 경우에 해당한다.
- ④ ㉔의 '비교적'은 "일정한 수준이나 보통 정도보다 꽤"라는 의미를 가진 부사이고, ㉕의 '비교적'은 "다른 것과 견주어서 판단하는"의 의미를 가진 명사다. 따라서 ④의 ㉔와 ㉕는 한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로 쓰인 경우에 해당한다.

2. ㉔

ㄱ의 '데'는 연결어미 '-는데'의 일부이고, ㄴ의 '데'는 의존 명사이다. 따라서 의존 명사가 조사와 형태가 동일하다는 ㉔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의존 명사는 ㄱ과 같이 반드시 그 앞에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하는 준차립어이다.
- ② ㄱ에서처럼 의존 명사 '리'는 주로 주격 조사와 결합하고, ㄴ에서처럼 의존 명사 '김'은 주로 부사격 조사와 결합하여 격 조사와의 결합에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ㄱ에서처럼 의존 명사 '줄'은 관형사형 어미 '-을'과, ㄴ에서처럼 의존 명사 '바람'은 관형사형 어미 '-는'과 결합하여 관형사형 어미와의 결합에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ㄱ에서처럼 의존 명사 '줄'은 주로 '알다, 모르다'와 같은 동사가 문장의 서술어로 와야 하므로 서술어와의 연결에 있어서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㉔

- ㉔ '가'에서 저녁에 먹은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고, '나'에서는 저녁에 피자를 먹었다는 대답을 하고 있으므로 ㉔은 설명 의문문에 해당한다.
- ㉕ '가'에서 요즘 인기 있는 연예인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고, '나'에서는 누가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했지만 이는 정보의 부재에 따른 결과이므로 ㉕은 설명 의문문에 해당한다.
- ㉖ '가'에서 라오스로 떠나는 것이 언제인지를 묻고 있고, '나'에서는 2주 뒤에 떠난다는 대답을 하고 있으므로 ㉖은 설명 의문문에 해당한다.
- ㉗ '가'에서 오늘 어디로 나가는지를 묻고 있고, '나'에서는 철수랑 만난다고 대답했지만 이는 나간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㉗은 판정 의문문이다.
- ㉘ '가'에서 내일 만나서 무엇을 할지를 묻고 있지만 '나'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㉘은 판정 의문문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4. ㉔

㉔에서 문장의 주어 명사구는 1인칭 대명사인 '나'이므로 재귀칭으로 대신할 수 없다. 따라서 ㉔의 '자기'는 문장의 주어 명사구인 '나'를 대신한 것이 아니다. 이때 '자기'는 "그 사람 자신"을 의미하는 명사이다. 따라서 ㉔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㉔의 질문에 대해 상대방은 "동우요."와 같이 대답할 것이므로, ㉔의 '누구'는 대상의 이름이나 신분을 모를 때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 쓴 미지칭에 해당한다.
- ② ㉔는 '누가'에 강세가 없으면 부정칭으로 해석되어 "아무도 안 왔어요."와 같은 대답이 가능하고, '누가'에 강세가 있으면 미지칭으로 해석되어 "동우가 왔어요."와 같은 대답이 가능하다. 이때 '누가'를 '아무나'로 바꾸면 부정칭으로만 해석되어 "네, 왔어요."와 같은 대답이 가능하여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 ③ ㉔의 '그'는 재귀칭이 아닌 인칭 대명사이므로 바로 앞에 온 명사 '근우'를 대신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문장 안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담화 상황 중에 존재하는 제3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장의 주어 명사구를 대신하려면 재귀칭이 쓰여야 하므로 '병수'를 대신한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
- ④ ㉔에서 문장의 주어 명사구인 '삼촌'을 대신하여 재귀칭을 쓸 수 있는데, 보편적인 재귀칭 대명사인 '자기'를 쓰거나 '삼촌'이 화자에게 있어 높임의 대상일 수 있으므로 '당신'을 쓸 수 있다. 그러나 화자에게 있어 낮춤의 대상을 대신하는 '저'는 여기서 쓸 수 없다.

5. ㉔

B의 '그'는 A가 제시한 기한인 오늘을 가리키는 말로,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키며 조사와 결합한 지시 대명사이다. 따라서 ㉔의 예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B의 '그'는 '사람'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관형사이고, 앞서 A가 이야기한 '실장님'을 가리키고 있는 지시 관형사이다. 따라서 ㉔가 아니라 ㉕에 해당하는 예이다.
- ③ B의 '그'는 '소식'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관형사이고, 앞서 A가 이야기한 '어제의 모임'을 가리키고 있는 지시 관형사이다. 따라서 ㉔가 아니라 ㉕에 해당하는 예이다.
- ④ B의 '그'는 '무엇'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관형사이고, 밝히고 싶지 아니한 일을 가리키는 상황에 쓰인 지시 관형사로 ㉔가 아니라 ㉕에 해당하는 예이다.
- ⑤ B의 '그'는 '책'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관형사이고, 듣는 이에게 가까이 있는 대상인 책을 가리키고 있는 지시 관형사이다. 따라서 ㉔가 아니라 ㉕에 해당하는 예이다.

6. ㉔

조사 중에서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조사는 격 조사이다. ㄴ의 '교실이'에서 '이'는 문장에서 '교실'이 주격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표시한다. 따라서 '이'가 주격 조사로 쓰임을 알 수 있다. ㄹ의 '과자를'에서 '를'은 문장에서 '과자'가 목적어로 기능한다는 것을 표시한다. 따라서 '를'이 목적격 조사로 쓰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ㄱ. '출지가'의 '가'는 앞말을 지정하여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 ㄴ. '시장에를'의 '를'은 앞말을 지정하여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 ㄹ. '먹지를'의 '를'은 앞말을 지정하여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7. ㉔

'동생과'의 조사 '과'는 '영호'와 '동생'을 비교함을 나타내는 비교의 부사격 조사이다. 단어와 단어, 또는 문장과 문장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조사를 접속 조사라 하는데, '와/과, (이)랑, 하고' 등이 쓰인다. 이때 '와/과'는 '동생은 서점에서 책과 공책을 샀다.'처럼 문어(文語)에서 주로 쓰이고, '(이)랑, 하고'는 '너(하고)랑 나랑(하고) 저기에 가자.'처럼 구어(口語)에서 주로 쓰인다.

[오답 풀이]

- ① '진호야'에서 조사 '야'는 부름을 나타내는 호격 조사로, 문장 안에서 독립어의 자격을 부여하고, '학교에서'의 '에서'는 처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문장 안에서 부사어의 자격을 부여한다.
- ② '꽃에'의 조사 '에'와 '동생에게'의 조사 '에게'는 일정하게 제한된 범위를 나타내는 의미와 수어의 대상임을 나타내는 기능이 동일하지만, '에'는 무

- 정 명사에, '에게'는 유정 명사에 결합하므로 명사의 성질에 따라 달리 선택된다고 할 수 있다.
- ④ '빨리는'의 조사 '는'은 부사 뒤에 결합한 조사이고, '해오'의 조사 '요'는 어미 뒤에 결합한 조사이다.
 - ⑤ '나만이'에서는 보조사 '만'과 주격 조사 '이'가 잇달아 쓰였고, '적으로부터'에서는 부사격 조사 '으로'와 보조사 '부터'가 잇달아 쓰였다. 일반적으로 조사는 '부사격 조사'-'보조사'-'부사격 조사를 제외한 격 조사'의 순서로 결합한다.

8. ②

'시장에서'의 '에서'는 '시장'이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의 뒤에서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부사어로 쓰였다. 앞말이 출발점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인 예는 '이 버스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간다', '그는 역사에서 철학에 이르기까지 많은 공부를 해왔다' 등이 있다.

9. ④

'늦게나마'의 '나마'는 부사어 '늦게' 뒤에 결합하여 조사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이 아니라 ㉡에 적절한 예문이다.

[오답 풀이]

- ① '어렵사리나마'의 '나마'는 부사어 '어렵사리' 뒤에 결합하여 조사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에 적절한 예문이다.
- ② '잠시나마'의 '나마'는 부사어 '잠시' 뒤에 결합하여 조사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에 적절한 예문이다.
- ③ '김치나마'의 '나마'는 체언 '김치'의 뒤에 결합하여 조사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에 적절한 예문이다.
- ⑤ '못하나마'의 '나마'는 어간 '못하-'와 결합하는 어미로 ㉡에 적절한 예문이다.

10. ②

②의 '황홀해라'에는 명령형 어미가 아니라 감탄형 종결 어미가 쓰였으므로 '황홀해라'는 적절한 표현이다. 따라서 '황홀해져라'로 고쳐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1. ④

- ㉠ '있다'는 형용사로, "사람, 동물, 물체 따위가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 ㉡ '있다'는 동사로,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머물"을 의미한다.
- ㉢ '있다'는 형용사로, "사람이 어떤 지위나 역할로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 ㉣ '있다'는 동사로, "사람이나 동물이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함"을 의미한다.
- ㉤ '있다'는 형용사로, "어떤 처지나 상황, 수준, 단계에 놓이거나 처한 상태"를 의미한다.

12. ②

⑥의 '있다'는 보조 동사로,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나 그 행동의 결과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말이다. 반면에 "그 남자는 오늘 집에 있다."의 '있다'는 동사로,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머물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따라서 ⑥의 '있다'와 "그 남자는 오늘 집에 있다."의 '있다'는 동일한 의미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먹어 보다'는 시험 삼아 함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보조 동사가 맞다.
- ③ ㉢의 문장은 "진수가 그 신문을 찼었다."라는 의미와 "진수가 그 신문을 찼어서 (휴지통에) 버렸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중의적 의미를 나타내지만, 밑줄 친 부분을 '찼어서 버렸다'로 바꾸면 '진수가 그 신문을 찼어서 (휴지통에) 버렸다.'라는 의미로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중의적 의미가 해소된다.

가 해소된다.

- ④ 보조 용언 '않았다'는 ㉠에서처럼 동사 '가다' 뒤에 결합하기도 하고,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에서처럼 형용사 '쉽다' 뒤에 결합하기도 한다.
- ⑤ ㉡의 보조 동사 '내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스스로의 힘으로 끝내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말로, 주로 그 행동이 힘든 과정임을 보일 때 쓴다. 따라서 "오빠는 유리에 묻은 페인트를 닦아 내려고 애를 썼다."의 '내다'와 동일한 의미이므로 바꾸어 쓸 수 있다.

13. ④

④의 '신다'는 'ㄷ' 불규칙 용언으로, '신-'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서'가 결합하면 어간의 'ㄷ'이 'ㄹ'로 바뀌므로 '신어서'가 아니라 '실어서'로 표기해야 한다.

[오답 풀이]

- ① '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으니'가 결합하면 어간의 'ㄷ'이 'ㄹ'로 바뀌므로 '걸으니'로 표기해야 한다.
- ② '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으니'가 결합하면 어간의 'ㄷ'이 'ㄹ'로 바뀌므로 '들으니'로 표기해야 한다.
- ③ '믿-'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으니'가 결합하면 어간의 'ㄷ'이 'ㄹ'로 바뀌지 않는 규칙 활용이므로 '믿으니'가 그대로 표기해야 한다.
- ⑤ '받-'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으면'이 결합하면 어간의 'ㄷ'이 'ㄹ'로 바뀌지 않는 규칙 활용이므로 '받으면'가 그대로 표기해야 한다.

14. ③

"한쪽으로 휘어져 있다."라는 뜻의 '굽다'와 "불에 익히거나 타게 하다."라는 뜻의 '굽다'는 동음이의 관계의 용언들이다. 이 용언들을 활용시키면 "한쪽으로 휘어져 있다."라는 뜻을 지닌 '굽다'는 '굽어서'로 활용되는 규칙 활용을 하지만, "불에 익히거나 타게 하다."라는 뜻의 '굽다'는 '구워서'로 활용되어 어간 '굽-'의 'ㅂ'이 '우'로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하므로 <보기>의 밑줄 친 내용에 적합하다.

[오답 풀이]

- ① "병이나 상처 따위가 고쳐져 본래대로 되다."라는 뜻의 '낫다'와 "보다 더 좋거나 앞서 있다."라는 뜻의 '낫다'는 동음이의 관계의 용언들이다. 이 용언들을 활용시키면 "병이나 상처 따위가 고쳐져 본래대로 되다."라는 뜻의 '낫다'와 "보다 더 좋거나 앞서 있다."라는 뜻의 '낫다'는 모두 '나아서'로 활용되어 어간 '낫-'의 'ㅅ'이 탈락하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 ② "발라 놓거나 바느질한 것 따위가 반반하지 못하고 우글우글해지다."라는 뜻의 '울다'와 "슬프거나 아프거나 너무 좋아서 견디다 못하여 소리를 내면서 눈물을 흘리다."라는 뜻의 '울다'는 동음이의 관계의 용언들이다. 이 용언들을 활용시키면 "발라 놓거나 바느질한 것 따위가 반반하지 못하고 우글우글해지다."라는 뜻의 '울다'와 "슬프거나 아프거나 너무 좋아서 견디다 못하여 소리를 내면서 눈물을 흘리다."라는 뜻의 '울다'는 모두 '울어서'로 활용되는 규칙 활용을 한다.
- ④ "미리 알려주다."라는 뜻의 '이르다'와 "어떤 장소나 시간에 달다."라는 뜻의 '이르다'는 동음이의 관계의 용언들이다. 이 용언들을 활용시키면 "미리 알려주다."라는 뜻의 '이르다'는 '일러서'로 활용되어 어간 '이르-'에서 'ㄷ'가 탈락하고 '르'이 생기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어떤 장소나 시간에 달다."라는 뜻의 '이르다'는 '이르러서'로 활용되어 어간 '이르-'에 기본 형태의 어미 '-어서'가 결합되지 않고 '-러서'가 결합되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 ⑤ "불이 붙어 불길이 오르다."라는 뜻의 '타다'와 "탈것이나 짐승의 등 따위에 몸을 엮다."라는 뜻의 '타다'는 동음이의 관계의 용언들이다. 이 용언들을 활용시키면 "불이 붙어 불길이 오르다."라는 뜻의 '타다'와 "탈것이나 짐승의 등 따위에 몸을 엮다."라는 뜻의 '타다'는 모두 '타서'로 활용되는 규칙 활용을 한다.

15. ④

- ㉠ '다섯'은 조사와 결합하였고, 수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수사에 해당한다.
- ㉡ '그런'은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러한"의 뜻을 가진 말로, '그렇, 그러던'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서술성이 없으므로 관형사에 해당한다.
- ㉢ '새로운'은 '새롭던, 새로울'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서술성이 있으므로 용언의 관형사형에 해당한다.
- ㉣ '다른'은 "당장 문제되거나 해당되는 것 이외의"의 뜻을 가진 말로, '다름, 다르던'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서술성이 없으므로 관형사에 해당한다.